

공동체 문화가 담긴 식기류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학과
이지연
2014

목차

머리글

연구 배경과 목적

몸글

식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 1) 함께 식사한다는 것에 관한 의미
- 2) 식사도구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

참고작가

- 1) 조지 쟈슨 George Jensen
- 2) 마리안네 브란트 Marianne Brandt

연구작업

- 1)제작의도
- 2)작업과정
- 3)완성

맺음글

머리글

연구 배경과 목적

모든 인간에게 가장 공통적인 것은 먹고 마셔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독특하게도 가장 이기적이면서, 절대적인 것이다. 한 사람의 사상이나 여타 물질적인 것은 서로 공유가 가능하지만 먹는 일만큼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먹는 것 이외에 그 어떠한 영역에서도 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절대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먹는 행위와 같이 원초적, 생리학적 사실은 인간에게 보편적 사실이기 때문에 공통된 행위로 발전해간다. 어떤 특별한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공동 식사에 함께 모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이 성찬을 위해서 모일 수 있었다.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세력 안으로의 편입과 그 집단의 재정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의 공동 식사는 중세인들에게 언제나 공동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확실성을 얻을 수 있는 상징이었다.

식사는 사회학적 사건이 됨에 따라서 더욱더 양식화되고 미학적으로 되었고, 개인적 규제가 생겨났다. 그 중 하나가 도구를 이용해서 먹는다는 것이었다. 손으로 먹는 것은 개인을 더 직접적으로 물질과 결합시키고 욕구들을 조금도 숨김없이 표현하지만 식사 도구를 사용하면 이 욕구들을 일정한 거리 밖으로 멀리함으로써 공통적인 형식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이다.

식사도구는 식사를 더 높고 종합적인 사회적 가치의 직접적, 상징적 표현으로 고양시키며 더 높은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게 해준다. 이러한 공동 식사가 가지는 의미와 공동체 문화가 담긴 식기류에 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몸글

식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1) 함께 식사한다는 것에 관한 의미

사람의 식사 행위는 우선적으로 생명 유지를 위한 개인적 행위이지만,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행위이다. 사람은 개인적 우의를 다지거나 공동체 의식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분노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공동 식사를 거부하기도 한다.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과의 식사,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며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인 간의 식사, 위로와 축하가 오가는 가운데 함께 하는 식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행위로서의 식사 기능을 확인시켜준다.

식사는 단순히 육구 해소를 이상의 것으로 인간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차려지는 식탁은 '문화'에 이르게 하는 자리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식탁을 차리는 것은 사회가 허용하는 음식에 관한 규제와 배치, 그리고 식탁이 놓이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따름으로써 음식을 담는 그릇과 수저의 종류, 식탁 주변의 자리, 식탁에서의 예절, 음식을 대하는 가치관 등 식사를 둘러싼 모든 것을 그 사회의 규제 내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식탁의 차림'을 통하여 한 사회 또는 한 공동체는 또 하나의 '문화'를 차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삶의 가장 원초적이고 개인적 행위로서의 식사 행위는 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행위 양식으로서 사회적 행위로 승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세력으로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타 공동체와 구분짓는 행위를 하는 것이며, 공동체 내에서도 상하관계와 권력관계를 구분짓게 만드는 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2) 식사도구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

음식은 당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 요소인 동시에 사회계급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하다. 시·공간을 막론하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삶들과 구분짓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직접적인 도구로서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노숙자나 빈민층에게서 보이는 음식 문화를 보면 대화가 거의 전무하고 생물학적 육구 해소 외의 다른 사회적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부유층에게서 보이는 음식 문화를 보면 가족적 단위보다 주로 인맥과 고급 정보 공유를 위한 친목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유층에서는 식사예절에 관한 엄격한 표준화와 균일화가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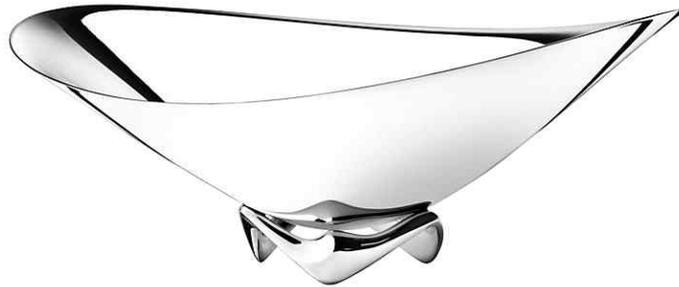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육구를 양식화시켰고, 다시금 식사의 사회화에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로 식사는 배를 채우는 목적 이외에 특정한 행동양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정한 행동양식은 식사도구마저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식사도구는 더 높고 종합적인 사회적 가치의 직접적·상징적 표현으로 고양시키고 더 높은 미학적 가치를 부여한다.

참고작가

1) 조지 쟈슨 George Jensen



조지 쟈슨 Jeorg Jensen / Cobra bowl / 191mm X 69mm / 스테인리스



조지 쟈슨 Jeorg Jensen / Koppel wave bowl / 169mm X 420mm / 스테인리스

조지 쟈슨은 당시 다른 디자인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망치자국을 그대로 살려 수공예품에서 느껴지는 멋을 그대로 살리고, 유행을 따르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과 높은 실용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이고 젊은 느낌을 주는 작품을 제작하는 덴마크의 유명한 금속공방이다. 귀금속 뿐만 아니라 은제 식기류나 식탁용품처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주로 은으로 작업하지만 식기류나 식탁용품의 실용성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은 이외에도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제작하기도 한다.

예술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했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실용성을 중요시 생각했던 그의 작품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유명해지면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회사이자 금속공예공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마리안네 브란트 Marianne Brandt



마리안네 브란트 Marianne Brandt / Teiera / 228mm X 178mm / 니켈은, 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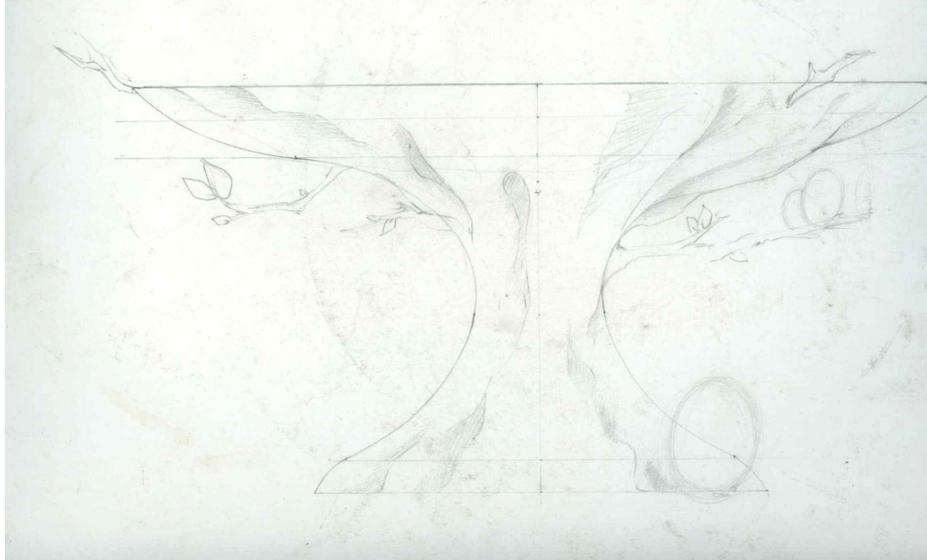


마리안네 브란트 Marianne Brandt / 재떨이 ashtray / 120mm X 68mm / 스테인리스

독일의 여자 금속공예작가로서, 바우하우스에서 금속공예작가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었다. 마리안네 브란트의 작품은 주로 기하학적 형태와 원, 구, 반구 형태에 기초를 두고 작업한다. 그녀는 매우 기능적이다. 그녀와 디자인한 금속으로 된 재떨이, 다구, 조명, 그 외의 다른 주방 용품 들은 아직도 바우하우스 시대의 최고의 유산으로 인식되었고, 그 중 몇 개는 지금까지 재생산이 가능 하다.

연구작업

1)제작의도



디저트는 본래 프랑스로 '식사를 끝마치다' 또는 '식탁 위를 치우다'의 뜻이다. 때문에 식사의 마지막에 제공되며 식탁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제공된다. 이 과정을 디저트 코스라고 하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젤리, 푸딩, 케이크, 아이스크림, 과일 등을 낸다. 디저트는 앞서 나온 음식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식사가 간단하면 양이 많거나 장식이 많은 후식이 나와야 하며 식사가 무거우면 간단하고 산뜻한 후식 어울린다.

다과를 올려놓는 케익 받침대는 흔히 케이크 트레이라고도 하는데 3단과 2단으로 만들어진 조립식과 도자기 접시가 부착된 일체형이 있어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분리형은 야외에서, 일체형은 실내에서 사용하기 좋다. 케이크 스탠드는 장식적인 효과와 함께 좁은 공간에서 즐기는 티타임에서 활용도가 높다. 주로 은과 스테인리스 제품이 많이 사용된다.

이번 연구 작품으로는 일체형 케익 받침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처음 의도했던 디자인은 이솝우화의 많은 내용에서 배경이 되는 나무를 구상하였다. 때문에 형태는 기본 케이크 스탠드의 형태를 유지하되 나무의 결을 나타내보기로 하였다.

2)작업과정



케익 받침대 중간과정

두 개의 금속판을 각각 내리기 기법과 올리기 기법으로 원하는 기본 형태를 만든 뒤 땀으로 붙여주었다. 그 이후 모루와 감탕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켰다. 위에는 케익을 받쳐줄 판을 고정해 줄 수 있도록 금속으로 고정판을 만들어주었고, 구멍을 뚫어 다른 작은 금속판을 리벳팅하여 받침판이 쉽게 조립과 분해가 되도록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나무의 결을 표현하기 위해 불규칙한 굴곡을 만들었지만 케익 받침대의 중심축은 휘어지지 않도록 작업해내기가 까다로웠다. 또한 받침대가 들어갈 고정대의 적동 사각봉을 받침대와 잘 맞을 수 있도록 일정하면서도 큰 원형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 또한 알맞은 모루나 형태가 없어서 원형을 맞추기에 힘들었다.

3)완성



케익 받침대 / 적동, 정은 / 305 X 150mm / 2013

맺음글

이번 논문에서 식사에 관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연구해보고 식기류를 제작해보았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인간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문화적 행위임을 확인하였다. 생명의 첫 호흡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인간의 삶 속에서 식사만큼 본질적인 것은 없다. 식사를 통한 결속과 유대는 여러 명이 동시에 음식을 먹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식사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대 셈족에게 식사는 신의 식탁에 공동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여겨 형제의 관계를 맺음을 의미했고, 아랍인들에게는 공동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철천지원수를 친구로 바꾸기도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사회화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이다.

앞으로 내 자신이 식기류를 만들면서 단순히 보기 좋은 식기류 제작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느끼는 의식과 문화에 관하여 좀 더 느끼고 생각하며 제작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짐멜, 게오르그 /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 김덕영 윤미애 옮김 / 새물결 출판사 / 2005년
박재환, 일상성 · 일상생활연구회 / 일상과 음식 / 한울 / 2009년
이용현 /예수의 식탁교제와 그 신학적 의미 /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2011년